

그 개가 사는 마을

원작 라스 폰 트리에(2003), 〈도그빌〉

작 / 각색 강예호, 김상욱

- 1장

어둠이 깔려있다. 개가 죽는 소리. 조명이 켜진다. 시골쥐 이장과 마을남자A, 마을남자B, 마을여자가 서있다. 사람들이 조명의 외곽에 걸쳐 가운데를 향해 묵념을 한다. 종소리 3번. 엄숙한 종소리에 맞춰 일련의 제의가 진행되고 종료된다.

이장 : 오늘 우리의 개가 죽었습니다.

마을남자A : 이제, 개가 없으니 우리 마을은 어찌죠?

이장 : 개가 없으면... (사이) 당분간은 없는 대로 살아야겠지요.

마을남자A 이장을 비난한다.

이장 : 진정! 진정 하시오! 이제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겠습니까. 자, 주목해주십시오. 애도가 끝났으니 이제 마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체계적이고, 도덕적이고, 이상적이지요. 올해도 옥수수를 마을에서 먹을 양만큼 수확하였습니다. 다른 먹을 것과 입을 것들도 창고에 알맞게 채워 넣었습니다. 우리의 완벽하고 이상적인 마을은 올해도 전과 다름없이 돌아갈 것입니다. 허나... (조심스럽게)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 가축 중 가장 큰 재산인 개가 죽어버렸습니다.

웅성대는 군중소리. 일동 혼란스러워 한다.

이장 : 누군가가 더 가지거나 덜 가지면 안 됩니다. 생산한 모든 것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고 사용한다. 모두의 약속이자 우리의 오랜 미덕이죠. (하늘을 가리키며)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의 아버지들이 그러했듯이 그 고귀한 약속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죽어버린 개한테 돌아갈 몫을 처분해야지 않겠습니까. 땅에 묻든지 버리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해야 할 것 같소만...

성난 군중소리. 마을 사람들 소리 지른다.

이장 : 그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옥수수 알알 하나 하나 따져가며 땡벌 아래에서 키워냈지요. 하지만, 당장에 개가 죽어버린 걸 어찌겠습니까. 진정들 하시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저것들을 땅에 묻으면 땅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좁은 마을에 버릴 곳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똑같이 조금씩 나누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을남자A : 그러다 배탈이라도 나면요? 그렇게 더 먹었다가 위라도 늘어나면 그 전의 몫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 할 텐데, 받는 양은 대대로 정해져 왔다고 그걸 깰 수는 없어요!

이장 : 그렇다고 저것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다.

마을남자B : 빨리 새로운 개를 데려와요. 개의 몫의 옥수수가 썩어가는 냄새를 맡으며 다 같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이장 : 옥수수는 그렇게 빨리 썩지는 않습니다.

마을남자A : 이장, 당신 때문이야! 개가 죽을 것 같았으면 새로운 개를 진즉에 데려 왔었어야 할 것 아냐! 내일 밤은 우리 집을 지킬 차례였어. 드디어 내 차례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장 : 당장 오늘밤은 내 집을 지킬 차례였어! 지금 당신만 개가 없어져서 힘든 줄 아는가? 마을 입장도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저기 저 옥수수를 보고도 당신 차례만 생각이 드나보지? 허, 당장 개만도 못한 인물이 있었군 그래!

마을남자A : 당신 말 다했어? 개만도 못한?

이장과 마을남자A는 서로 먹살을 잡을 듯 가까이 다가가고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몰려든다. 그 사이를 시골쥐가 끼어들어 말린다.

시골쥐 : 그, 그만. 우리 마을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옥수수가 너무 많다고 다들 지경이니 말이에요.

마을남자A 이장 서로 떨어진다.

시골쥐 : (멋쩍게 웃으며) 옥수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조금 나눠주는 건 어떨까요?

마을남자A : (신경질적으로) 다른 마을 사람들이라고? 이봐, 마을의 약속, 기억 안나나? 우리가 옥수수를 이렇게 풍족하게 키워낸걸 알면, 결국 다른 마을 놈들이 우리를 해치러 올 거라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건 이유가 있어서야!

마을여자 : 그래요. 이게 다 마을을 지키기 위한 거라구요!

시골쥐 : 그렇게 너무 단정 짓지 마세요. 전 여러분이 다들 남을 해아려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고 있던 책을 보여주며) 제가 책에서 봤는데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누고 먼저 베풀고 아프면 약도 나눠주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올려주고...

이장 : (말을 끊고) 약은 한명이 1년에 딱 세 알뿐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 마을의 약속에 어긋납니다.

시골쥐 : (기가 죽어) 네에.

이장 : 그럼... 한명의 봉사로 모두가 편해지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 옥수수를 좀 더 먹을 사람 없습니까?

이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뒤를 돌아선다.

이장 : 음. 그래요. 옥수수만 퍼먹기는 좀 그런가? 제 몫의 소금을 더 드리리다. 이장으로서 이 정도 희생이야 할 수 있지요.

마을남자A : (무심하게 힐끔) 당신이 먹으면 되겠구먼.

마을여자 : 그래요. 당신이 먹으면 되겠네요.

마을 사람들 웅성거리며 이장을 바라본다.

이장 : 죄송하지만 전 옥수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양하겠습니다.

마을남자A : 마을 사람들 모두 옥수수를 먹는데 무슨 소리야! 이 사기꾼이!

마을여자 : 사기꾼, 험잡꾼!

마을남자A : 이장! 다 당신 때문이야! 우리의 개! 우리의 개를 돌려줘!!

이장 : 아, 아니 왜들 그러시오.

마을남자A : 개를 돌려주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이장 : 개가 죽은 게 내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남자B : 관리하지 못했잖아.

이장 : 그, 그건.

시골쥐 : 진정하세요.

마을남자A : 뭘 자꾸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저 새끼는 개가 죽을 시기도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 모두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시골쥐 : 개가 죽은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장님도 죽일 건가요? 이장님 뭇은요? 그것까지도 짐으로 만들고 싶으신 건 아니잖아요.

마을남자A : (할 말을 잃으며) 으, 알겠어. 알겠다고! 이장이 이장의 뭇을 하고 있겠다는 건 알겠어. 잘 먹고, 잘 싸고. (돌변하며) 잠깐, 근데 넌? 넌 뭘 하고 있지?

시골쥐 : (당황하며) 저, 저요?

마을남자A : 그래, 그래, 그래! 너! (생각을 끄집어내며) 작년이었지! 니녀석 어미가 뻥 하면 쓰러지는 바람에 우리를 약까지 다 털어가며 겨우 살렸더니. 한창 바쁠 때에만 픽픽 쓰러지고, 결국 그대로 골로 가버렸잖아? 덕분에 니녀석 어미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다 해야만 했다고!

시골쥐 :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마을여자 : 맞아요. 제가 그때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마을남자A : 어쩔 수 없는 일이란 건 없어! 맞아, 마을 일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건 니녀석의 잘난체랑... 그리고 니녀석 어미 탓이야. 재수 없는 니들 모자 때문에!

시골쥐 아무말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

마을남자A : 그 어미에 그 자식이라고! 안 좋은 기운이 저 새끼한테도 썩인거지.

이장 : 그것과 이것은 다른 일인 것 같습니다.

마을여자 : 이장! 저년과 한통속이세요? 공정하지 못하게 왜 편을 드는 거죠?

이장 : (물러나며) 아니, 그것이 아니고.

마을여자 : 속이 더러운 말은 당신 뱃속에나 넣어둬요. 당신은 당신의 자리를 지켜!

이장 성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다. 일동 시골쥐를 쏘아붙인다. 시골쥐 당황한다. 시골쥐를 가운데로 몰아넣는다. 사람들 시골쥐 위협하며 주변으로 몰려든다. 시골쥐 자기 집으로 황급히 도망

간다. 암전. 밤의 소리. 이장은 자신의 집으로 간다. 마을남자A와 마을여자 집으로 돌아간다. 마을남자B 퇴장한다.

조명이 들어온다. 깊은 밤. 도시쥐 힘들게 들어온다. 다소 지쳐있다. 얼굴에 어두움이 가득하다. 지쳤는지 이윽고 개집 앞에 앉는다. 처연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쳐있다. 그러나 살고 싶다. 하지만 눈이 감긴다.

조명이 들어온다. 시골쥐 고뇌에 차 있다. 고통스럽다. 마을을 서성인다. 개집 앞에서 도시쥐를 발견한다. 시골쥐 놀란 채로 도시쥐를 살며시 깨운다,

시골쥐 : 저기요. 괜찮아요?

도시쥐 : (화들짝 일어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시골쥐 : 네. 무슨... 일이지요?

도시쥐 :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도와주세요. 쫓기고 있어요. 전 나쁜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다만... 쫓기고 있을 뿐이에요. 믿어주실 지는 모르지만, 절 그리 나쁘게 보지 않으시다면, 제발 절 도와주세요! 3일간 아무것도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도와주...

요란한 자동차 소리가 들리다 이윽고 시동이 꺼지는 소리가 난다. 낮선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도시쥐 시골쥐의 눈동자를 애절하게 쳐다본다. 시골쥐는 도시쥐의 손목을 꼭 잡고 자신의 집 쪽으로 향한다. 시골쥐는 도시쥐를 자신의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집 밖으로 나온다. 마을 사람들은 침묵. 마피아 한명이 마을을 둘러보다가 시골쥐의 집 쪽으로 발길을 향한다. 마피아가 시골쥐 쪽으로 향할 때마다 조명이 하나씩 꺼진다. 마피아가 시골쥐의 집 앞에 서면 무대 위에 조명은 마피아, 시골쥐, 도시쥐만을 비추고 있다. 벽 하나만을 경계로 도시쥐는 가려져 있다. 마피아가 시골쥐에게 뭐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시골쥐와 마피아를 비추는 조명이 꺼진다. 이제 조명은 도시쥐만을 비춘다.

총소리 3발. 도시쥐가 있는 공간에 조명이 더 들어 온다. 총을 손에 든 채로 마피아 보스 나타난다.

마피아보스 : 머리에 한발, 가슴에 한발, 그리고... 다시 가슴에 한발. 나를 배신한 대가다. 한방에 숨통을 끊어준 건 옛정이야. 감사히 여겨. 개 같은 년.

도시쥐 비명을 겨우 누르며 기겁한다.

마피아보스 : 그 망할 놈이 똥쳐가면서도 네 이름을 부르더구나. 그걸 위안 삼아라.

마피아보스 도시쥐를 총으로 희롱한다. 이죽거리면서 도시쥐를 쳐다본다. 도시쥐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한손으로 도시쥐의 머리를 감싸 품에 안는다.

마피아보스 : 넌 날 벗어날 수 없어. 오늘밤도 내 방에 오는 걸 잊지마.

도시쥐 소리 없이 미쳐 질러간다. 마피아보스 히죽거리며 퇴장한다. 시골쥐와 마피아가 있는 곳의 조명이 켜진다. 마피아 시골쥐에게 명함을 하나 준다.

마피아 : 그 녀를 찾으면 꼭 여기로 연락해. 사례는 후하게 하지. (이죽거리며) 하지만 우릴 속였다간 여기 사람들 머리에 죄다 바람구멍이 날거야.

마피아 퇴장한다. 시골쥐 사라지는 마피아 쪽을 쳐다본다. 마피아가 준 명함을 한참이나 보다가 챙겨둔다. 이윽고 자동차 시동이 걸리고 자갈을 튀기며 자동차는 저 멀리 사라진다. 시골쥐 집 안으로 들어간다. 소리 없이 질리고 미쳐가는 도시쥐를 발견하고 당황해한다. 이윽고 도시쥐를 진정시키려고 애쓴다. 도시쥐 기절한다. 암전.

- 2장

시골쥐의 집. 도시쥐는 경계를 하며 조용히 있다. 이따금, 집 밖을 향해 귀를 연다. 마을 사람들 각자의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시골쥐는 한손에는 짐을 들고 있다. 마을남자A가 시골쥐를 헐박하며 괴롭힌다. 시골쥐는 반항하려다 만다. 도시쥐 시골쥐가 오고 있는 소리를 듣자 자리로 돌아가 앉는다. 시골쥐 집으로 들어간다.

시골쥐 : 잘 있었어요?

도시쥐 : 이제 오셨군요.

시골쥐 : 밥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미안해요. 오늘은 뭐하고 있었어요?

도시쥐 : 딱히요.

시골쥐 : 이런, 미안해요. 다음에는 더 빨리 올게요.

도시쥐 :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시골쥐 : 식사 가져왔으니까 이리 와서 먹어요.

도시쥐 : 같이 먹어요.

시골쥐 : 전 먹고 왔어요. 드세요.

도시쥐 : 네.

도시쥐 바구니에서 먹을 것을 꺼내 먹는다.

시골쥐 : (조심스럽게) 입에 맞나요?

도시쥐 : 네, 맛있어요.

시골쥐 : 도시에서 먹던 거랑 많이 다르죠? 여긴 시골이라서... (눈치를 보다가) 아, 죄송해요. 제가 괜한 얘기를 했나요?

도시쥐 :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이) 저번에 얘기한 도시 얘기가 꽤 재밌었나보네요?

시골쥐 : 마을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도시는 책에서 본 이야기가 전부죠. 이 곳 사람들은

무척이나 선량하지만, 바깥에 사는 사람들을 전혀 믿지 않죠. 전 마을 밖이 너무 궁금해요.

도시쥐 : 어떤 게 궁금해요?

시골쥐 : (호기심에 넘쳐) 모두 다요!

도시쥐 : (웃으며) 도시를 가보고 싶나요?

시골쥐 : 당신이 도시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사실 (땀을 흘리다) 저는 언젠가 저를 구원해주러 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시쥐 : (당황하며) 구...구원이요?

시골쥐 : 우리 마을 사람들은 정말 선량하지만, 전 여기서 미움을 받고 있거든요.

도시쥐 : 당신을 보면, 다들 착한사람들일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이 미움을 받는다고요?

시골쥐 : (조심스럽게) 전 항상 마을 밖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마을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한다고요. 우리 마을의 위대한 가치를 더 빛내기 위해서, 더욱 더 위대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수용을 해야만 한다고요. 그런데, 몇 가지 일이 터졌고, 제 이야기를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했죠. 제가 이 마을에 어울리는 사람이란 걸 증명하는 것도 벽차기 시작했어요. 전 깊은 나락으로 빠졌죠. 가시가 잔뜩 돌아난 자전거 페달을 영원히 밟는 것만 같았죠. 그런데, 당신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속으로 꿈꿔왔던 생각을 증명해줄 사람이에요!

도시쥐 시골쥐의 장황한 말에 당황한다.

도시쥐 : 아마 설명이 부족했을 거예요. 다들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화하면 당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요? 전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다 한명씩 천사가 있다고 믿어요. 마을사람들은 아직 그 천사가 눈뜨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열면 그들도 당신을 믿어주고 대화가 가능해질 거예요. 좋네요. 이런 대화. 그동안은 저도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시골쥐 : 당신의 말, 너무 좋아요! 그동안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마을 바깥을 잘 몰라요. 두려워하기만 하죠. 나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죠. 직접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죠.

도시쥐 : 어째서요?

시골쥐 : 빼앗길까봐, 당할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도시쥐 :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 그럴 일이 없을 텐데.. 서로 미워하다니 슬픈 일이에요.

시골쥐 : (웃으며) 당신을 보고, 확신했어요.

도시쥐 : 어떤 확신이에요?

시골쥐 : 당신은 우리 마을 사람들처럼, 아니 우리 마을사람들 보다 훨씬 선량하고, 무엇보다 다르지 않은걸요. 무서운 사람도 아니구요. 당신은 제 이론의 증거가 될 거예요!

도시쥐 :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처럼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골쥐 : 바깥사람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과 닮음을 선량한 사람들 인거죠. 그래요. 우리 마을에는 수용이 필요해요. 외부사람을 수용해도 똑같이 선량할 마을. 그게 제 꿈이죠. 전 사람들을 설득시킬 거예요. 우리 마을이 계속해서 위대할 것이라는 것어요. 당신이 절 도와줄 수 있어요!

도시쥐 : 제가요...? 제가 어떻게 말이죠.

시골쥐 : 마을 사람들에게 도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두요. 당신이 바로 그 증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도시쥐 : 하지만... 저는...

시골쥐 : 당신 이야기를 해주면 되요. 그러기만 하면 되요.

도시쥐 : 그러면...

시골쥐 :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도시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저번에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도시쥐, 시골쥐가 재촉하는 모습에 살짝 눈치를 보고 입술을 깨물다 점점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방 안에 단상으로 쓸 만한 곳에 올라간다. 음악이 흐른다(도시를 연상시키는 소음이 나와도 좋다). 도시쥐는 무언가 이야기를 펼친다. 시골쥐는 이에 감복한다.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자신의 일을 한다. 마을의 조명에 주황색 빛이 섞인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를 드린다. 종소리 한번. 도시쥐 당황하며 멈춘다. 기도시간이다. 시골쥐는 제 자리에 서서 기도를 드리다 도시쥐의 이상 행동에 놀란다. 종소리 한 번. 도시쥐 비틀거리면 넘어진다. 시골쥐 도시쥐를 도와주려한다.

시골쥐 : 괜찮아요? 왜 그러세요?

도시쥐 : 저, 저 종소리 들리지 않아요? 사, 살려주세요.

시골쥐 : 교회 종소리요?

마지막 소리는 종소리. 도시쥐 비명소리와 함께 기절. 암전.

불이 들어오면 바구니를 들고 있는 시골쥐가 위협적인 이장과 같이 있다.

이장 : 마을에 개가 필요하다고 몇 번을 말했나. 모르겠나? 마을엔 당장 개가 필요해.

시골쥐 : 이장님.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걸요.

말이 채 끝나기 전 이장은 시골쥐를 잡아 밀치고 위협적으로 말한다.

이장 : 마을 안에서 니놈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나? 그 이상한 책 나부랭이만 읽고... (사이) 떠들어대서 마을의 분위기가 얼마나 흐려졌는지 아느냐고!

시골쥐 : 이건 이상한 책이 아니에요, 이장님. 이장님도 제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해요. 제 말은...

이장은 시골쥐의 책을 뺏어서 던진다.

이장 : 다시 한 번만 헛소리를 지껄이면, 마을의 규칙을 어기면 규칙대로 할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마을을 지킬 개지, 이상한 책에 넘어가서 헛소리 하는 몽상가가 아니야.

시골쥐 떨리는 손으로 책을 줍는다. 이장은 시골쥐의 턱을 잡아 위를 보게 한다.

이장 : 우리 마을엔 개가 필요해요. 개를 (뜸을 들이다) 구해오세요.

이장 시골쥐의 턱을 잡아 던지고 돌아선다. 시골쥐는 책을 바구니 안에 넣고 옷으로 대충 얼굴을 훑친다.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하고 억지웃음을 지어보인 뒤 도시쥐를 부른다.

시골쥐 : 잘 기다리고 있었죠?

도시쥐 : ...

시골쥐 : (한숨 쉬며) 들었어요?

도시쥐 : 아니, 개가 뭐라고...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시골쥐 : (억지웃음) 개가 뭐라니요. 개는 엄청나게 중요한 가축인걸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집도 지켜주고.

도시쥐 : 개가 사람보다 중요할리 없잖아요!

시골쥐 : (시골쥐의 반응에 시큰둥하며) 우리 마을에선 개가 정말 중요해요.

도시쥐 : 그래봤자 개잖아요. 사람도 아니고 개인데. 여기 사람들은 정말 미쳤어요!

시골쥐 : 이곳에선 개가 정말 중요해요. 개가 없으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구요.

도시쥐 : 아무리 그래도...

시골쥐 : 개가 없으면 어두운 밤하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쥐 : ...

시골쥐 : (헛웃음 지으며) 뭐.. 이장님한테는 개가 더 중요한 거겠죠.

도시쥐 시골쥐를 위로하려 한다.

도시쥐 : 아니에요. 저한테, 저한테 당신이 더 중요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그때 죽었을 거예요.

시골쥐 : 고마워요. 저도 당신이 (말을 잊지 못하며) 고마워요.

도시쥐 : 같이 개를 구해볼래요...?

시골쥐 : 그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골쥐는 도시쥐를 떼어내어 바닥에 앉는다. 바구니에서 음식을 꺼내준다.

시골쥐 : (조심스럽게) 저기, 혹시.

도시쥐 : 왜요, 무슨 걱정 있어요?

시골쥐 : 내일 마을 회의가 있을 거예요.

도시쥐 : 마을 회의요?

시골쥐 :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마을의 일을 정하는 날이죠. 그래서 말인데, 내일 혹시 마을 회의에 같이 가시겠어요?

도시쥐 : 마을 회의를 같이요? (난감해하며) 제가 여기 있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할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시골쥐 : 당신을 위한 거예요.

도시쥐 : 모르겠어요. 전 정말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요.

시골쥐 : (공황에 빠진 시골쥐를 붙잡고) 언제까지 제가 당신을 몰래 숨겨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마을에 아예 정착하는 건 어때요?

도시쥐 : (쑥스러게) 정착.

시골쥐 :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책을 쓰다듬으며) 제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할 사람이에요. 운명적으로 찾아온 아주 특별한 손님이에요. 우리 마을과 저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 마을 사람이 되는 건 어때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요.

도시쥐 : (난감해하면서) 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정착.

도시쥐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조명이 바뀐다. 도시쥐는 애인이 되고 시골쥐는 도시쥐가 된다. 둘 다 연기 톤이 바뀌게 된다.

애인 : (의자에서 일어나 도시쥐에게로 가면서) 난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것들로부터 당신을 구해낼 거예요. 그 개자식의 속박을 풀어드릴게요. 저와 함께 떠나요.

도시쥐 : 전 떠날 수 없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 사람은 악마예요. 우리를 결국 찾아낼 거예요. 우릴 찾아서 죽여 버릴 거라구요!

애인 : 배를 준비했어요.

도시쥐 : 뭐라구요?!

애인 : 당신을 그 악마로부터 구할 거예요. 이 표를 받아요. 거절하지 말고.

도시쥐 : 이 도박이 당신을 죽일 거예요.

애인 : 산다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표를 보고 있는 도시쥐에게) 그곳에 정착해서 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무도...

조명이 바뀌고 원래의 역할대로 돌아간다.

시골쥐 : 어때요? 제가 한말?

도시쥐 : (화들짝 놀라며) 예?

시골쥐 : 왜 그래요? 혹시 머리가 아프세요?

도시쥐 : 아, 아니예요. 아무것도. 아무도.

시골쥐 : 내일 마을 회의 때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도시쥐 : 아, 그건.

시골쥐 : 마을사람들이 얼마나 선량하고 좋은 데요! 당신도 이곳에서 자기 자리를 잡고 역할을 갖게 된다면, 머지않아 우리 마을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도시쥐 : 잘 모르겠어요. 뭇보다 전 이 마을에 있으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도망치는 중이구요. 더 이상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몸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떠날 때가 된 거 같아요. 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짐을 챙기며)

시골쥐 : 잠깐만요!

시골쥐 품속에서 마피아가 건넨 명함을 꺼낸다.

시골쥐 : 이게 당신이 위험한 증거죠? 당신을 처음 본 그 밤에 어떤 남자에게서 받았어요.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을 쫓는 거 같았죠. 당신을 찾으면 연락 달라고 하더군요.

도시쥐 겁에 질려 떨기 시작한다.

시골쥐 : 하지만 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시골쥐 명함을 구겨서 던진다.

시골쥐 :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당신이 위험한 증거는 이 세상엔 없어요. (도시쥐 무릎 꿇고 시골쥐의 손을 잡으며) 이 마을에서 함께 살아요.

도시쥐 :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하며) 내일 같이 마을회의에 가요. 당신을 따라갈게요.

암전.

- 3장

마을 중앙에 놓인 나무 앞에 시골쥐가 있다. 조명 아래에 시골쥐 만이 들어와 있다.

시골쥐 : 제 지루한 연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의 변화가 우리 마을을 좀 더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이죠.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증거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시골쥐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도시쥐가 나무 앞으로 온다. 어색해한다. 어둠속에 걸쳐있는 목소리. 사람들이 웅성이는 소리가 들린다.

이장 : 자기소개를 해보시죠.

도시쥐 :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에서 왔구요. 이름은...

이장 : 그만, 형식적인 소개는 앞의 지루한 연설에서 충분히 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도시쥐 : 저는 도시에서 왔구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을남자A : 여기로 온 이유가 뭐라고 했죠?

도시쥐 : 아, 그건.

시골쥐 : 그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수용 말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우리 마을의 위대한...

마을남자A : (질린 듯이) 알았어. 알았다고! 정말 시끄럽게 종알대는군.

이장 : 여기서 살기로 결심한 겁니까?

도시쥐 : 네에.

이장 : 왜 그런가요?

마을여자 : 이장님, 그런 질문 또 했다간 지루한 말을 또 들어야해요.

모두들 수궁한다.

마을남자B : 도시에서 무엇을 했다고 했죠?

도시쥐 : 교사였습니다.

이장 : 이곳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죠?

도시쥐 :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오르간을 연주할 수도 있구요.

마을여자 : 우리 교회에는 오르간이 없어요.

도시쥐 : 건반이 있는 악기라면 무엇이든 괜찮아요.

수근대는 소리.

도시쥐 : 아이들을 좋아해요. 잘 가르칠 수도 있구요.

마을여자 : 어떤 걸 가르칠 수 있죠?

도시쥐 : 산수,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기, 문학작품 감상과 그림 그리는 것두요.

이장 : 많은걸 할 수 있으시군요.

마을남자A : 여기서 그런 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걸. 우린 그런걸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아.

도시쥐 : 여기서 어떤 일이 필요한가요?

마을남자A : 마을 창고를 지키는 일, 다리를 보수하는 일, 농사짓는 일 그밖에 더 있나?

도시쥐 : 어떤 일도 다 할게요.

이장 : 여기서의 일을 해야 합니다.

마을남자B : 어떠한 일이든 규칙을 따라야 해.

이장 : 어떠한 일이든 규칙의 대가를 따라야 합니다.

마을여자 : 지당하신 말씀이죠.

이장 :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있나요?

도시쥐 : 병은 없습니다.

이장 : 가지고 온 물건은요?

도시쥐 : (당황해하다가) 오는 길에 흘려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을남자A : (조롱하며) 많이 챙겨줘야 겠수다.

이장 : (말리며) 그만 좀 하게. 마을 분위기가 뒤숭숭하니 이해해 주시지요.

도시쥐 : 네에.

이장 : 입을 옷도 없겠군요?

시골쥐 : 그건 제가 챙겨주겠습니다.

이장 : 알겠어요.

웅성대는 소리. 결정을 기다린다.

이장 : 좋습니다. 마을에 와서 사는 걸 허락합니다.

도시쥐 :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장 : 살 곳은 정했나요?

도시쥐 : 네, 저기 언덕 위에.

시골쥐 : 제가 사는 집에 같이 살 겁니다.

이장 : 그 집에 남는 방이 있던가요?

시골쥐 : 네. 저희 어머니가 쓰시던 방이 있습니다.

이장 : 아, 그러면 될 거 같군요.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차차 정하기로 하죠.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빨리 찾길 바라겠습니다.

시골쥐 조명 안으로 들어와 도시쥐와 포옹하며 진심으로 기뻐한다. 조명이 환하게 바뀌고 평화로운 음악소리가 흐른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각자의 위치로 가서 자신의 일을 하게 된다. 마을사람A는 밭일을 한다. 마을사람B는 집에서 공구를 챙겨 일을 한다. 마을여자는 마을사람A를 따라 일을 한다. 이장은 자신의 집에서 장부를 정리한다. 시골쥐는 도시쥐를 데리고 수공업을 한다. 조명이 어둡게 바뀌고 푸른빛이 섞인다. 각자 저마다의 위치로 돌아가 하루를 마무리한다. 음악 소리 사라진다.

시골쥐 : 잘자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도시쥐 : 당신도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암전. 닭이 우는 소리. 날이 밝는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일을 하러 나간다. 도시쥐와 시골쥐는 서로를 의지하고 밝게 웃는다. 서로를 챙겨주며 집을 나선다. 모두들 각자의 위치로 간다. 다시 조명에 주황빛이 섞이고 마을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다. 이장 웃으며 도시쥐에게 먹을 것을 몇 개 쥐어준다. 마을은 화기에애한 분위기다. 암전.

- 4장

조명이 들어온다. 도시쥐와 마을여자와 이장은 수공업을 하고 있다. 도시쥐의 곁에 마피아 보스가 있다.

마피아보스 : 창녀.

도시쥐 : 그만하세요.

마피아보스 : 그게 니넌의 위치야.

도시쥐 : 제발..

마피아보스 : 니넌은 어쩔 수 없어. 나한테 묶여있는 창녀라고.

도시쥐 :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언젠가 회개하리라고 믿어요.

마피아보스 : 맘대로 하라지. 난 용서가 내리는 양심의 철퇴 따위 하나도 두렵지 않으니까.

도시쥐 : 미쳤군요.

마피아보스 : (뺨을 때리며) 입을 좀 조심히 쓰도록 해.

도시쥐 : 그래도... 난 믿어 볼 거예요.

마피아보스 : 그래서 그녀석이 여기에 바람구멍이 난거라고.

마피아보스 퇴장. 마을 종이 한번 울린다.

이장 :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시지요.

도시쥐 :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여자 :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장 : 열심히 해준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마을여자 :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장 :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요.

도시쥐 : 저야말로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이장 : 아, 이건 홍차인데 좀 가져가시게나.

마을여자 : 이건 목도리예요. 날씨 추워지면 그때 써요.

도시쥐 : 정말 다들 감사해요.

이장 : 마을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잘 적응하다니 대단해요. 누구와 다르게 비교가 되지 만...

시골쥐도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길이다. 시골쥐 이장의 마지막 말에 민망해하면서 도시쥐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도시쥐 : 수고하셨습니다.

시골쥐 도시쥐 집으로 돌아간다. 시골쥐 전의 살가운 분위기는 살짝 사라지고 낮설고 민망해하는 분위기가 가득하다. 도시쥐는 이것이 불편하지만 어찌 말해야할지 모르고 망설여한다. 서로

밀린 집안일을 한다.

도시쥐 : (분위기를 바꿔보려) 아, 오늘은 이장님이 홍차를 주셨어요. 같이 먹으...

마침 종소리가 울린다. 하던 것을 멈추고 둘 다 기도를 올린다.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다 자연스레 넘어간다. 차분하고 경직된 시간이 이어진다. 조명 서서히 꺼진다.

푸른 조명이 켜인 조명. 새벽녘. 경관이 수배지를 들고 마을로 들어온다. 이장의 집으로 향해 그를 깨운다.

경관 : (경례하며) 아, 수고하십니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마피아보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망친 여자죠. 조직에서 도망친 거 같은데 아마 창녀나 그런 거겠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생. 조직에서 도망치려다 사람 한명 찌르고 도망치는 사람들. 마피아들도 여기저기 들쭈시고 다녀서 아주 골치가 아픁니다. 그 친구들보다 먼저 찾아야하니 협조 바라겠습니다.

경관은 수배지를 이장에게 전달하고 경례 후 사라진다. 이장 수배지를 보더니 기묘한 웃음을 짓고 품 안에 집어넣는다. 곧 날이 밝는다. 두 쥐는 일을 나갈 준비를 한다. 시골쥐는 농기구를 챙겨 무대 밖으로 나가고, 도시쥐는 수공업거리를 챙겨서 움직인다. 도시쥐는 수공업거리 일을 시작한다. 이장 도시쥐에게 다가간다.

이장 : 뭐 힘든 일 없나요?

도시쥐 : 아, 신경 써주신 덕분에 따로 없어요.

이장 :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시쥐 : 아, 네. 무슨 일이신가요?

이장 : 잠깐이면 됩니다.

도시쥐 : 말씀하세요.

이장 : (대뜸 손을 잡고) 혹시 우리 집으로 올 수 있겠어요?

도시쥐 : 왜, 왜 그러시는거죠?

이장 : 차라도 한잔 하면서 오순도순 이야기도 하고...

도시쥐 : 네? 그렇지만,,

이장 : 인간적인 연민을 느껴서 그래요.

도시쥐 싫은 티를 낸다.

이장 : 이곳에서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도시쥐 : 네?

이장 : 이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도시쥐 : 무슨 말씀이세요?

이장 : 같이 밤을 보내는 건 어떻습니까.

도시쥐 : (굳으며) 아, 죄송합니다. 그건 안 되겠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이장 : (수배지를 보여주며) 이게 뭔지 알겠어요?

도시쥐 : ...

이장 : 세상에. 우리 마을에 재앙 덩이리가 들어왔지 뭐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입혀주고 먹여 주고 살 곳도 줬지 뭐니까. 우리 마을을 파멸시킬 악마가 들어왔는데도! 오오 사람을 찌르고 도망쳐오다니. 이리도 사악할 수 있을까. 사람을 찌르고도 그리도 뻔뻔하게 이 선량한 마을에 살기로 하다니. 참으로 끔찍하지 않아요? (비열하게) 니 녀의 사악한 속내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뻔 했구나.

도시쥐 : 사, 살려주세요.

이장 : 하, 살려 달라? 우리 마을을 재앙의 구덩이에 밀어 넣을 뻔 해놓고 살려 달라? 어찌 그렇게 뻔뻔한 말을 할 수 있지? 니 녀는 필시 악마요, 마녀요, 요부야. 아주 사악하고 사악한! (손에 잡히는 몽둥이로 마구 구타하며) 죽어! 죽어!

도시쥐 : 시키는 대로 다할게요. 제발... 절 보내지 마세요.

이장 : (화를 삭이며) 후우. 마을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겠어요. 이 수배지? 이것도 없애줄게요. 대신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야 할 겁니다. (마을 사람들 돌아온다) 마침 돌아오는군요.

마을 사람들 이장과 도시쥐와 마주친다.

이장 : 다들 마침 오셨군요. 제가 마을 규칙을 좀 찾아봤습니다.

마을남자A :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시쥐를 발견하고) 아니, 왜 이렇게 된겁니까.

이장 : 새로운 사람이 오면 경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시골쥐 : 무슨 말씀이세요.

마을남자B : 이장님, 미쳤습니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마을여자 : (시골쥐를 챙기며) 그래요, 어쩔 이렇게...

이장 : 이녀이 도망치려던 것을 붙잡았습니다. 아주 고약하죠?

마을남자A : 뭐라고?

마을여자 : 사실이에요? 도망치려던 게?

도시쥐 : (마지못해) 네에.

이장 : 마을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한다. 이 규칙을 기억하실 겁니다. 더군다나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의 규칙을 어긴 거죠.

마을남자A : 아주 단단히 미쳤군!

시골쥐 : 정말로 도망치던가요? 진짜 도망치던 걸 잡은 거예요? 그럴리 없어요. 그럴 리가...!

이장 : 조용! 특별히 자네의 의견을 ‘수용’ 해서 저 미친 여자를 수용했건만. 이게 자네가 부르짖던 마을을 위대하게 만들 철학인가? 이게 자네가 말한 도덕의 끝인가? 마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

시골쥐 :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마을남자A : 조용히 해! (시골쥐를 밀치며) 이미 명백하지 않나! 저 미친녀는 도망치려고 했고 시인했어. 니녀석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어. 결국 이렇게 되다니! 한번만 더 지껄이면, 넌 스스로 마을 사람이란 걸 증명해야만 할거야.

이장 : 자, 그럼 우리의 규칙에 따라 벌을 내릴까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일동 : 네.

이장 : 아시다시피 우리 마을의 유일한 개가 얼마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명확하게 하죠. 우리 마을엔 지금 당장 개가 필요합니다. 더 기다릴 수도 없고, 마침 벌을 내릴 죄인도 있구요. 찬반투표로 확실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개를 정합시다. 우리 마을의 전통에 따라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손을 드십시오.

도시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든다.

이장 : 아직 한 사람이 손을 들지 않았군요. (도시쥐를 바라보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도시쥐 : ...

이장 : 없는 거 같군요,

도시쥐 : ...

이장 : 다시 투표하도록 합시다. 동의하는 사람은 손을 드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만장일치입니다.

도시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손을 든다. 사람들의 시선이 도시쥐에게로 쏠린다.

이장 : 자, 다시 투표하도록 합시다. 손을 드세요.

도시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손을 든다.

이장 : 손을 드세요.

도시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손을 든다. 사람들이 도시쥐에게로 몰려든다,

이장 : 손을 드세요.

도시쥐에게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도시쥐 힘없이 엉금엉금 기면서 도망가다 마을남자A와 마을 여자에게 붙잡혀서 되돌아온다.

이장 : 손을 드세요!

조명이 무대 가운데로 다시 좁혀지며 도시쥐에게 집중된다. 손을 힘없이 든다.

이장 : (도시쥐에게 개목걸이를 채우며) 소개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개입니다.

암전.

- 5장

마을남자A : 내 차례야. 산책 좀 하지.

도시쥐 개목걸이를 마을남자B의 손에서 마을남자A의 손에 쥐어주고 무대를 한 바퀴 돌다 같이 퇴장한다. 마을남자B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시골쥐는 책을 들고 이동하다 시골쥐는 마을남자A의 산책을 보고 멈춰 서서 당황해한다. 이장은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는다. 시골쥐는 마을에서 파돌림이 심해지게 된다. 하지만 마을은 평화롭다. 아늑하고 목가적인 분위기의 음악이 흐른다. 새소리도 좋다. 전체 조명이 약해지고 주황빛 조명이 살짝 섞여있다. 까마귀 소리가 난다. 도시쥐와 마을남자A 무대로 돌아온다. 도시쥐 말뚝에 스스로 자신을 매어놓고 잠시 눕는다. 시골쥐는 도시쥐를 무심히 본다. 마을남자A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기도를 올린다. 이장이 도시쥐에게 다가간다.

이장 : 이제 우리집 차례일세. 이제 우리 집을 지켜주게.

도시쥐 이장을 따라 이장의 집으로 간다. 시골쥐는 집안일을 한다. 마을남자A와 마을여자는 일찍 취침에 든다. 전체조명이 더 어두워진다. 푸른 조명이 섞인다.

이장 :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

조명이 서서히 꺼져간다. 시간이 지난 후, 조명이 다시 들어온다. 도시쥐는 집으로 돌아간다. 개목걸이를 스스로 벗고 바구니 안에 숨기고 들어간다. 도시쥐는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한다. 시골쥐 불을 끄는 동작을 한다. 조명이 많이 어두워진다. 시골쥐 자리에 눕는다. 암전.

날이 밝는다. 두 쥐 집안 정리를 한다. 둘 다 일을 나갈 준비를 마친다. 도시쥐 스스로 개목걸이를 차려고 한다. 시골쥐 그 모습을 보고 표정이 굳어진다. 시골쥐 도시쥐 서로를 쳐다본다. 아무 말이 없이 서로를 쳐다본다. 도시쥐 먼저 무너져 내린다. 시골쥐 황망하게 도시쥐를 쳐다보다 조용히 다가가 안아준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집으로 마을남자A가 다가온다.

마을남자A : 이봐, 일 나갈 준비 안하고 뭐하는 거야? 둘 다 얼른 나와!

도시쥐 : 정말,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실망시켰어요.

시골쥐 : 아니에요.

도시쥐 : 정말, 미안해요.

시골쥐 : 알았어요.

도시쥐 : (시골쥐를 끌어안으며) 미안해요.

마을남자A : 빨리 나와!

시골쥐 : 이제, 나가봐야겠어요.

도시쥐 : 그럼, 이따 봐요.

시골쥐 : 이따 봐요.

둘 집을 나간다. 서로 엇갈리며 지나가다 도시쥐 시골쥐 서로의 손을 한번 살짝 잡았다가 멀어
져간다. 마을남자A 쇠사슬을 잡고 무대 밖으로 끌고 나간다. 도시쥐의 비명소리. 암전.

도시쥐 개집 앞의 말뚝에 묶여있다.

이장 : 잠깐만, 멈춰보게.

마을남자A : 왜 그러는거죠? 지금은 제 차례라구요.

이장 : 이보게. 개를 한번 보게. 상태가 안 좋지 않은가.

마을남자A : 흠... 그런 거 같군요. 그런데 어찌라는 거죠? 오늘은 제 차례라구요. 마을의 개잖
아요. 문제 될 것이 있습니까?

이장 :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이렇게까지 하면 개가 위험하네. 자네 말마따나 마을의 개라서
그렇다네. 문제 될 것이 있단 말일세.

마을남자A : 제 차례니까 쓰는 거라구요.

이장 : 그 다음 사람도 생각해야지!

마을남자A : 다음 사람이고 뭐고, 제 차례라니까요!

이장 : 다음 사람도 생각 안하고 개를 대하니까 이러는 거 아닌가! 다음 차례는 나란 말이야!
자네같이 이기적으로 개를 쓰는 사람 때문에 다음 차례까지 안 오는거라고.

마을남자A : 규칙을 지키세요!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그러고도 어른이라니.

이장 : 말 다했나?

마을남자A :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장 : 쓰레기 같은 놈!

마을남자A : 추잡한 늙은 양반. 당신이 제일 더럽게 개를 다루는 거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

이장 : 이, 이 미친놈이...!

마을남자A :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모두들 당신이 산책시킨 다음에 개를 데리고 나가는 걸
싫어한다구요.

이장 : 아무튼 지금은 안 돼! 개를 제 자리에 놔둬. 개가 또 죽으면 그때서야 정신차릴텐가.

마을남자A : 으으으. 더러운 영감탱이. 내일은 내가 제일 먼저요!

마을남자A 씩씩대며 퇴장한다.

이장 :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군요.

도시쥐 : 오늘은 쉬는 건가요?

이장 : (인자하게) 그래, 오늘은 꼭 쉬시게나.

도시쥐 : 감사합니다.

이장 : 그전에.

도시쥐 : 네?

이장 : 3일에 한번은 너무 감질나니까 내일부터는 매일 밤 오도록 해요.

도시쥐 : 네에.

도시쥐 집으로 돌아가 의자에 앉아 쉰다. 사람들 일을 마치고 등장한다. 각자 서로의 집으로 돌아가고, 시골쥐도 집으로 돌아간다. 시골쥐 도시쥐의 상태를 보고 놀라 다가간다. 선뜻 다가가지 못하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시골쥐 : 괜찮아요?

도시쥐 : 조금은요.

시골쥐 : 오늘은 쉰다고 들었어요.

도시쥐 : 이장님이 쉬라고 하더군요.

시골쥐 : 잘 되었네요.

도시쥐 : 그러니 조금은 괜찮아 졌어요.

시골쥐 : (망설이다가) 저기, 진짜 도망치려고 했어요?

도시쥐 : 네에.

시골쥐 : (실망하고) 그렇군요.

도시쥐 : 하지만, 당신이 싫은 건 아니에요.

시골쥐 : 난, 내가 당신을 만나고 확신을 얻고 위안을 얻었듯이, 이곳에서 당신도 위안을 얻길 원했어요. 당신은 제게 구원이었으니까.

도시쥐 : 당신도 제게 구원이었어요. 당신은 내가 그려온 사람이었어요. 밝고, 희망차고..

시골쥐 : 도망가다가 붙잡혔다고 했을 때, 당신이 미워졌어요.

도시쥐 : 미안해요.

시골쥐 : 배신감을 느꼈어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라곤 당신뿐인데.

도시쥐 : 미안해요.

시골쥐 : 그런데 지금 당신은 죽어가고 있어요.

도시쥐 : 믿음을 배신한 대가인거겠죠.

시골쥐 : 아니요. 규칙을 어긴 대가예요.

도시쥐 : (씁쓸하게) 규칙은 절대적이라고 했죠.

시골쥐 : 날 원망해요?

도시쥐 :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시골쥐 : 도망치게 도와줄까요?

도시쥐 : 그런 말을 해주는 게 고맙네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시골쥐 : 도망쳐서 아예 더 먼 곳으로 사라지세요.

도시쥐 : 거기도 똑같겠죠.

시골쥐 :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 집에서.

도시쥐 : 그냥, 안아주세요.

시골쥐 도시쥐를 마지못해하는 듯 안는다.

시골쥐 : 날 어떻게 생각하죠?

도시쥐 : 편안한 사람.

시골쥐 : (물러나 초조해하며) 난 사실 당신을 좋아해요.

도시쥐 : 저도 좋아해요.

시골쥐 : 그렇다면.

도시쥐 : 그렇다면?

시골쥐 : (바구니에서 개목걸이를 꺼내며) 나도 이걸 써도 될까요?

도시쥐 : 진심이에요?

시골쥐 :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도 내가 좋다면서요.

도시쥐 : 날... 지켜주지도 않았잖아.

시골쥐 : 그건, 그건 당신이 잘못된 거잖아요. 마을을 도망치려고 하고. 또! 날 먼저 도왔어야지. 날 돕지도 못하고. 이기적이었어!

도시쥐 : 제발... 정신을 차려요.

시골쥐 : 아, 미안해요. 아, 내가 실수를 한 거 같네. (돌변하며) 아냐, 아냐! 이게 아냐! 내가 바랐던 건 이게 아니었다고! (사이) 난 구석에 몰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주 외톨이가 되어버린거 같아.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곤란한지 아냐고.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이 정도는 보상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날 좋아한다면서?

도시쥐 : 그래서요?

시골쥐 : (개목걸이를 흔들다 내려놓는다) 마을의 규칙대로 하고 싶어졌어.

시골쥐 도시쥐에게 다가가다 책상 위에 있던 책을 떨어트린다. 도시쥐 책을 집어 들어 주다가 책 내용을 본다. 시골쥐 사색이 되어 말리려고 하나 도시쥐는 계속해서 책을 넘긴다. 백지만 계속 이어진다. 이윽고 책갈피에서 구겨진 명함을 찾는다. 도시쥐 표정이 얼었다가, 이내 얼굴이 구겨지고 감정이 터져 무너져 내린다. 시골쥐 당황하지만 도시쥐를 멈출 수 없다.

도시쥐 : 버렸다고 했잖아요.

시골쥐 : 그...그건

도시쥐 : (백지의 책을 들춰 보이며) 다 거짓이고 (던지며) 위선이고 (밀치며) 아무것도 아냐. (스스로 목줄을 차며) 나, 난 당신을 위해... (사이) 아냐, 난 여기서 죽겠어.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당신이 날 죽인거야.

도시쥐 개집 쪽으로 향한다. 사슬을 높은 곳에 매달고 교수형을 꿈꾼다. 시골쥐 깜짝 놀라 도시쥐를 끌어내리고 뒤에서 감싼다.

도시쥐 : 놔!! 이거 놓으라고!!

시골쥐 : 아무도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다급하게 이장과 마을남자A, 마을남자B가 나와서 도시쥐를 제압한다.

도시쥐 : 놔!! 놓으라고!!

이장 : 이게 어떻게 된거죠?

시골쥐 : 그러니까.. 갑자기 자살을 하려고 해서..

도시쥐 : 니가 날 죽인거야, 이젠 자살이 아냐! 당신이 날 죽인 거라고!

이장 : 이게 무슨 소리죠?

시골쥐 : (망설이다) 드디어 미쳤나 봅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나 버린 것 같군요.

이장 : 더 이상 개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겠군요. 입을 막을 걸 가져오세요.

도시쥐의 몸을 묶고, 재갈을 씌운 채로 개집 앞에 앉힌다.

이장 : 더 이상 개를 잃으면 안 되죠. 이젠 우리 마을 전체를 위한 작은 희생입니다.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참아주시죠.

마을남자A : 뭐.. 이러는 편이 서로에게 더 좋겠네요, 다칠 일도 없고. 사실 그동안 발톱이 스쳐서 아팠거든요.

이장 : (이죽거리며) 암전해진걸 보니, 진짜 개가 되었군요.

이장 도시쥐를 쓰다듬다가 끌고 무대 밖으로 나가려다한다.

마을남자A : 방금까지 날뛰던 개랑 산책을 하시는 겁니까?

이장 : (사람 좋게 웃으며) 오늘은 색다르게 산책을 하는 건 어떤가요? 따라와 보게.

마을남자A : 하하하. 이제야 말이 통하네!

네 사람 함께 퇴장한다. 암전.

6장

마을 가운데에 조명이 집중되어 있다. 조명 안에는 도시쥐가 있다. 조명 외곽에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 있다. 도시쥐는 의자에 힘겹게 앉아있다.

이장 : 다들 모였으니 마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더 추워질 것입니다. 각자 방한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겨울을 보낼 식량과 기름은 충분하니 안심하고 자기 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만 있어보자, 이제 안건을 받아볼까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마을남자B : 마을 창고에 기름을 더 준비해야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더 춥다고 하네요.

이장 : 알겠습니다. 참고 하도록 하죠.

마을남자B : 트랙터의 부품을 더 조달해야합니다. 부속이 더 필요해요.

마을여자 : 위생용품이 충분한지 더 확인을 해야 해요.

이장 : 네 알겠습니다. 곧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 없나요?

마을남자A : (불편해하며) 저기, 이장님, 왜 마을의 개가 회의에 있는 건가요.

이장 : 아, 오늘 일이 있어서 제가 불렀습니다. 왜 그러시죠?

마을남자A : 아, 그렇군요. 다름이 아니라 개가 요즘 들어 상태도 안 좋고 산책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망가졌잖습니까. 애들이 보기도도 흉하고 하니 새로운 개를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체시기를 잘 맞춰야 순번에 피해도 없을 텐데요,

이장 : 안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땀을 흘린다) 주목해주시시오. 남사스러운 일이기도 해서 말하기 힘들었는데... 사실... 우리 마을의 개가 도시에서 온 범죄자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사람들 동요한다.

이장 : 하마터면 재앙의 씨를 마을에 심을 뻔 했지 뭇니까. 도시에서 자기 두목을 찌르고 도망친 창녀라더군요. 아주 악질입니다. 악질. 불결하게 자기 몸을 판 것도 모자라, 사람을 찌르다니. 사람의 얼굴을 하고 태연한 척을 한 겁니다. 다행히도 제가 이 사실을 알아낸 겁니다.

마을남자A : 우리가 범죄자와 같이 있었다는 거요? 맏소사 이렇게 불결할 수가 있나! 이장님, 왜 범죄자를 개로 쓴 겁니다. 이 더러운 죄를 씻을 수가 있을 런지요!

마을여자 : 더러워, 더러워 어떻게 이런 더러운 여자와 함께 지낸 거죠?

이장 : 자, 진정들 하시지요. 어차피 우리가 마을 사람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개로만 부렸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우린 이 창녀를 개로 취급했지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우리에게 죄는 없을 겁니다. 마을의 개일 뿐이니까요.

마을남자A : 정말 그럴까요?

마을여자 : 우리에게 죄는 없는 것이겠죠?

이장 : 아무렴요. 우리는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마을의 규칙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냥 이 범죄자를 넘기면 될 겁니다.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마을여자 : 저년이 여기 있었던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하려 구요?

이장 : 이 개는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이장이 개를 툭툭 치자 도시쥐는 아무런 반응도 없다.) 미친지 오래죠. 미친년이 하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마을남자A : 그럼 언제 넘길 겁니까?

이장 : 다음 주 수요일에 마을에 정기 운송 트럭이 오면 그걸 타고 밑에 다녀올 겁니다.

마을남자A : 그때 까지는 개를.. 살살 쓰면 되는 거겠지?

이장 : 아무렴요.

요란한 자동차 소리가 들리다 이윽고 시동이 꺼지는 소리가 난다. 무서워하던 시골쥐 퇴장한다.

이장 : 아니, 갑자기 왜 돌아가는 거야. 마을 밖에 누가 왔나? 확인해보고 오게.

마을남자A 퇴장한다. 총소리 3발. 남자의 비명소리. 어수선하고 공포 분위기. 마피아보스와 마피아 총을 들고 등장. 마을 사람들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른다.

이장 : 아니, 누구십니까, 왜들 그러십니까.

마피아보스 : 사람을 찾으러 왔다네.

도시쥐, 마피아 보스를 발견하고 몸을 숨기려다, 묶인 목줄에 걸려 벗어나지 못하고 책책거린다.

마피아 보스 : (밝게 웃으며) 우리 강아지가 여기 있었군.

마피아, 도시쥐를 일으켜 세운다. 마치 정육점에 걸린 고기처럼 도시쥐는 매달려있다. 마피아 보스는 도시쥐를 껴안고 도시쥐의 체향을 깊게 들이쑤다.

마피아 보스 : 우리 강아지, 온몸에서 사내 냄새가 나는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마피아, 도시쥐를 내려둔다. 도시쥐가 숨을 고르는 사이

이장 : 저.. 누구십니까?

마피아 보스 : 아, 이 마을 대표인가? 내가 누구인지는 알 것 없네. 난 내 강아지를 좀 찾으러 온 것뿐이야. 아, 이보게. 명함을 받은 친구가 우리 강아지가 어디 있는지 찾아줘서 말인데. 사례를 해야지. 어디계시나?

이장 : 아, 차, 찾아보도록 하죠. (퇴장한다)

도시쥐, 옆드린 채로 오열하다 점차 호흡이 바뀌고 웃음소리로 바뀐다. 웃음소리는 다시 우는 소리로 바뀐 채 흐느낀다.

도시쥐 : 아버지, 결국 절 찾아내셨네요.

마피아 보스 : 네가 어딜 가도 난 알 수 있지.

도시쥐 : 그렇네요.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마피아 보스 : 그래, 네가 경험해 본 밖은 어땠니?

도시쥐 : 제 생각은 다 틀렸어요.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모두 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었고, 모든 믿음은 물거품이 되었어요. 사랑했던 그는 죽었고, 절 믿어준다 했던 사람은 절 죽였습니다. 여기서의 경험이 결국 저를 아버지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주셨는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생을 아버지 옆에 있겠어요.

마피아 보스 : 이리 오거라, 우리 딸.

무표정으로 마피아 보스에게 안긴 도시쥐는 가만히 마을을 둘러본다.

도시쥐 : 자신의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을 보았어요. 우물 안을 벗어나 더 큰 꿈을 꾸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건 다 소용 없는 허상이었죠. 당연한 얘기에요. 이곳보다 더 크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없으니까요. 여긴 온갖 추악한 것들의 축소판이었어요. 작은 마을이었지만 큰 세계였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마피아 보스 :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도 알겠지?

도시쥐 : (미소 지으며) 네.

마피아 보스 : 그래 우리 딸. 어서 집에 가자. 낯선 사내들 냄새도 씻어내고.

도시쥐 : 네.

마피아 보스 : 어떻게 하고 싶지?

도시쥐 :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이장 시골쥐를 데리고 나온다.

이장 : 선생, 여기 이 아가씨가 그쪽들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댁내 식구들이 저 창녀를 원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신고를 했다는군요. 이 아이의 용기가 선생께 큰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듣자하니 사례 얘기도 하셨다고 했는데...

총소리. 이장 쓰러진다. 마을에 공포가 더 휩싸인다.

도시쥐 : (마피아 보스를 보며) 정말 이분께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밝게 웃는 선량한 모습. 마을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총소리. 마을남자B 쓰러진다.

도시쥐 : 이분에게도 많이 배웠습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ய요. 고마우신 분이니다.

도시쥐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마을여자에게 다가간다.

도시쥐 : 아이가 울지 않으면 다 살려줄게요. (아기는 이내 울고만다) 아, 시끄러.

총소리. 총소리. 총소리.

마피아, 시골쥐를 끌고 들어와 앉힌다.

도시쥐 : 왜 그래요?

시골쥐 :

도시쥐 : 말해봐요.

시골쥐 : 당신을 믿었어요.

도시쥐 : 저도 당신을 믿었던 적이 있었죠.

시골쥐 : 먼저 배신한건 당신이야! 당신은 이 마을에서 도망치려고 했어. 날 배신했어!

도시쥐 : 도망쳐도 같은 곳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드글드글하죠, 싸구려 선행을 베풀고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시골쥐 : 당신은 내 구원이 아니었어.

도시쥐 : 당신의 이론은 틀렸어요. 그걸 먼저 말해줬어야 했는데.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사람이란 건. 아무데도 없답니다.

시골쥐 : 아니야! 너 같은 건. 네가 우리 마을을 망쳤어, 너 같은 걸 끌어들이는 게 아니었어!

도시쥐 : 이장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아, 이장님은 좋은 선생님이셨죠.

마을 총소리.

도시쥐 : 기도 드릴시간이에요.

시골쥐 : ...

도시쥐 : 기도드려야죠?

시골쥐 몸을 떨며 기도 자세를 취한다.

마을 총소리. 총소리와 함께 시골쥐 쓰러진다.

마피아 보스 : 그럼 집으로 돌아갈까?

도시쥐 : 아버지 아직 마을 사람들이 남았어요.

도시쥐 정면을 보고 무대에 걸터앉는다.

도시쥐 : 왜 그렇게 보고 있죠? 살려달라는 외침을 못 들으셨겠죠. 당신도, 당신에게도, 또 당신에게도 외쳤는데, 아무도 구해주질 않으셨네요. 아무도 구해주시질 않더군요.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만. (사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대체 몇 명일까요. 내일의 개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가만히 지켜보는 눈빛이 빛나고 있네요. 여러분에게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암전. 총소리 관객석을 울린다. 그리고 개 짖는 소리 멀리서 들려온다.